

‘사이버 왕따’에 맞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왕따’ 문제는 아이들에게서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의 법은 교내 환경이나 학교 기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왕따’ 현상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등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왕따’ 문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번지게 되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의 ‘사이버 왕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는 이러한 실정에 맞서 학교 바깥의 아이들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한 ‘사이버 왕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 지속적이고 심각한 따돌림은 아이들에게 학력 저하 및 학교에서의 불안감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 배에서 9 배까지 자살을 생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수는 동양계 학생들이 타 인종의 학생들보다 더 많으며, ‘사이버 왕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2009 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양계 학생들이 자신들이 ‘왕따’를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주요 인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욱 높았습니다. 또한 동양계 학생들이 평균 학생 인구의 4 배 가까이 ‘사이버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동양인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수단으로 주로 인종차별적 모욕을 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이버 왕따’는 일반적인 ‘왕따’보다 더욱 큰 타격을 줍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일반적인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보다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왕따’를 당한 학생들은 일반적인 ‘왕따’를 당한 학생들보다 학교 안에서 더욱 큰 수치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 학교 안의 소통과 문화의 장벽은 특히 이민자 자녀들의 ‘왕따’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많은 경우 학교들은 대부분 이민인 학생들이 ‘사이버 왕따’의 피해를 당해도 언어나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인구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애틀랜타의 학교들 같은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동양계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종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며 학교 안팎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이버 왕따’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위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advancingjustice-atlanta.org 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